

손흥민 이탈... 토트넘·벤투호 ‘근심 가득’

잉글랜드 FA컵 준결승 2차전 결장으로 전력 공백
콘테 감독 “A매치 휴식이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에이스’ 손흥민(30)의 부상 이탈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근심도 깊어 간다.

토트넘을 이끄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이탈 중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콘테 감독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첼시와 2021-2022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 2차전을 하루 앞

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복귀에 대한 소식은 A매치 휴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5일 첼시와 리그컵 준결승 1차전(토트넘 0-2 패)을 치른 뒤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선발로 출전해 후반 34분까지 뛰 경기 다음 날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했고, 9일 모어컴과 2021-2022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에 결장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근육 문제다. 이전에 말했듯 다소 이상한 상황이다. 경기 중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 날 통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팀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다들 아실 것이다.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4시 4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첼시와 리그컵 준결승 2차전 홈경기

를 치른다. 1차전에서 0-2로 패한 만큼 결승 진출을 위해 대역전극이 필요하지만, 손흥민의 결장으로 전력에는 큰 공백이 생겼다.

콘테 감독의 예상대로 손흥민이 2월에도 돌아온다면, 한국 축구대표팀도 ‘캡틴’ 없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7·8차전을 소화해야 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7일 레바논 원정으로 최종예선 7차전을, 다음 달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리아와 8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12일 ‘K리그 전지훈련 미디어캠프’에서 제주Utd 주민규가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제주Utd 간판 주민규 1000만원 기부

제주도유소년축구발전기금

제주유나이티드의 간판공격수 주민규(31)가 12일 ‘K리그 전지훈련 미디어캠프’에서 제주도유소년축구발전기금 1000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를 통해 기부했다.

2021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최다 득점상(22골)과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2관왕을

차지했던 주민규는 자신을 지금의 위치까지 있게 해준 제주에 감사하며, 축구 발전을 위해 상금과 더불어 자비를 더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주민규는 “제주도민과 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면서 “제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코리안 좀비’ 세계 정상 도전

UFC 273에서 챔피언전
볼카노프스키와 맞대결

드디어 기회가 왔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35)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도전한다.

UFC의 소식통인 아리엘 헬와이니 기자는 12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월 9일(현지시간) 열리는 UFC 273에서 정찬성과 UFC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34·호주)의 타이틀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애초 볼카노프스키는 3월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272 메인이벤트에서 맥스 홀러웨이와 격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홀러웨이가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되자 UFC 페더급 랭킹 4위인 정찬성에게 챔피언 도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다만 일정은 한 달 뒤로 미뤄져 한국시간으로 4월 10일 열리는 UFC 273에서 정찬성과 볼카노프스키의 타이틀전이 열린다. 대회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헬와이니 기자는 전했다.

볼카노프스키는 UFC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막강한 페더급 챔피언

이다. 지난해 9월에는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2차 방어에 성공했다.

오르테가를 꺾기 전인 2019년 12월에는 홀로웨이를 심판전원일치 판정으로 누르고 타이틀을 지켰다. 정찬성에게는 생애 두 번째 타이틀 도전 기회가 찾아왔다.

정찬성은 2013년 8월 한국인 최초로 UFC 타이틀에 도전한 적이 있다. 당시 챔피언 조제 알도와 맞붙어 4라운드 TKO로 패배했다.

2라운드까지는 알도가 우세했지만 4라운드부터는 정찬성에게 분위기가 넘어왔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정찬성의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면서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후 군 복무를 위해 육타군을 떠났던 정찬성은